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뉴스레터

제 9 호
2023. 6.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NEWSLETTER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는 5월 26일(금) 오후 2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 Fukuda Yasuo) 전 일본 91대 내각총리대신에게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CONTENTS

1.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에게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 1

2. 연구서 발간 ····· 7

3. 교수 연구활동 ····· 9

4. 추천도서 ····· 13

5. 제1기 IFES 북핵 아카데미 ····· 15

6.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 17

7. 연구소 동정 ····· 19

8. 예정사항 ····· 20

1.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에게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1 개 요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는 5월 26일(금)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소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 Fukuda Yasuo) 전 일본 91대 내각총리대신에게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경남대학교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한반도 평화 및 한일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에게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명예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장관), 강창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전 국회의장),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일대사), 안호영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미대사),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 등 많은 한일협력위원회 위원들과 북한대학원대학교 및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좌측으로부터 최복실 한일협력위원회 이사, 이대순 경남대 한마학원 이사장,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91대 내각총리대신,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김선향 심연학원(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김기병 한일협력위원회 이사장>

2 학위 수여 경위서

경남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일본국 제91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시고 현재 「아시아인구와 개발협회(APDA)」 회장이자 「아시아보아포럼(BFA)」 고문회 회장이신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 Fukuda Yasuo) 전 총리께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1990년 일본국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하여 외무성 정무차관과 관방장관 등 내각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 2007년 9월 제91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임된 이후에는 선친이신 후쿠다 다케오(福田糾夫) 전 총리의 '후쿠다 독트린' 정신을 계승하여 동아시아 외교 복원에 공헌하였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신뢰관계의 구축과 우호협력에 크게 공여하였습니다.

3.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중국과는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호혜관계를, 북한과는 대화를 통한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핵문제의 해결에 진력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관계발전에 입각한 동아시아 평화 질서 확립과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4. 2008년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아시아보아포럼(BFA)」 회장(2010~2018), 「인구와 발전에 관한 아시아 국회의원 포럼(AFPPD)」 회장(2005~2012)을 역임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셨습니다.

5.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경남대학교의 국제 학술연구 활동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오셨으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일본 국내의 학술·연구회의에 참석하시어 격려를 해주시는 등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헌신적 봉사와 한반도 평화 및 한일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경남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와 대학원학칙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3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내각총리대신 답사 (요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이 날씨도 좋은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남대학교에서 명예학위를 수여받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학위를 받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학위를 받아도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국제관계, 한일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좋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학위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실 정치학이라는 게 아무리 공부해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를 하면서 무언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학자분들께서 논문이나 연구로 만들어 내서 무언가를 풀어내고 계시는데 사실 정치는 문자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학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도 많이 완화가 되었고 한일관계도 형식적으로는 많이 정상회된 이 타이밍에 박사 학위를 수여 받게 되어서 굉장히 유의미하고, 평생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과분한 소개를 저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사실 한일간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사람으로서 깊이 고민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면서 보다 좋은 한일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짧은 정치 소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여생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으니 남은 시간 동안 한일관계를 위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또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총장님, 이사장님, 관계자분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언론 보도현황

연번	분류	보도일자	언론사명	기사 제목	비고
1	통신사 (14건)	5월 26일	연합뉴스	[포토] 경남대, 후쿠다 전 일본 총리에 명예 박사학위 수여	
2		5월 26일	연합뉴스	경남대, 후쿠다 전 日총리에 명예박사학위… "한일우호에 기여"	
3		5월 26일	뉴시스	'셔틀외교 복원' 후쿠다 전 일본 총리, 경남대서 명예 박사학위	
4		5월 26일	뉴스원	후쿠다 야스오 前 일본 총리, 경남대서 명예 박사 학위	
5		5월 26일	CNB뉴스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일 전 91대 내각총리 대신 명예박사학위 수여	
6		5월 26일	부울경CNB뉴스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일 전 91대 내각총리 대신 명예박사학위 수여	
7		5월 26일	경남뉴스투데이	경남대학교,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91대 내각총리대신에게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8		5월 26일	국제뉴스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에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9		5월 26일	뉴스프리존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에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10		5월 26일	한국공보뉴스	경남대학교,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91대 내각총리대신에게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11		5월 27일	파이낸셜뉴스	후쿠다 전 日총리, 경남대 명예박사…"한일 관계 개선"	
12		5월 30일	뉴스핌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내각총리대신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연번	분류	보도일자	언론사명	기사 제목	비고
13	방송 (3건)	5월 30일	노컷뉴스	후쿠다 日 전 총리,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 받아	
14		5월 30일	아시아경제	후쿠다 야스오 前 日총리, 경남대서 정치학 명예박사학위	
15		5월 26일	KBS	경남대, 후쿠다 전 日총리에 명예박사학위… "한일 우호에 기여"	
16		5월 30일	LG헬로비전	경남대, 후쿠다 전 日 총리에 명예박사학위 수여	
17		5월 30일	MBC	후쿠다 전 일본 총리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	
18	일간지 (17건)	5월 26일	동아일보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前 일본 총리에 명예 박사학위 수여	
19		5월 27일	동아일보	[라운지]경남대(총장 박재규)	
20		5월 26일	중앙일보	'셔틀외교 복원' 후쿠다 전 일본 총리, 경남대서 명예 박사학위	
21		5월 26일	미주중앙일보	'셔틀외교 복원' 후쿠다 전 일본 총리, 경남대서 명예 박사학위	
22		5월 26일	경향신문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에 명예 박사학위 수여	
23		5월 26일	SPN서울평양뉴스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총리에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24		5월 26일	스포츠조선	경남대, 후쿠다 전 日총리에 명예박사학위… "한일우호에 기여"	
25		5월 26일	한국경제	경남대, 후쿠다 전 日총리에 명예박사학위… "한일우호에 기여"	

연번	분류	보도일자	언론사명	기사 제목	비고
26		5월 27일	팍스넷	후쿠다 전 日총리, 경남대 명예박사...“한일 관계 개선”	
27		5월 30일	경남신문	경남대, 후쿠다 전 日총리에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	지면/온라인
28		5월 30일	창원일보	경남대, 후쿠다 전 日총리에 명예박사학위	
29		5월 30일	경남도민신문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30		5월 30일	교수신문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91대 내각총리대신에게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31		5월 31일	경남도민일보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에 명예박사 수여	
32		5월 31일	경남연합일보	경남대, 전 日 내각총리대신에 명예 박사학위 수여	
33		5월 31일	경남매일	후쿠다 야스오, 경남대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 받아	
34		5월 31일	경남일보	경남대, 후쿠다 전 총리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	
35	기타 (2건)	5월 26일	한국대학신문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36		5월 26일	베리타스알파	경남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91대 내각총리대신에 명예정치학 박사학위 수여	
37	외신	5월 26일	교도통신	福田元首相に名誉博士号□韓国の慶南大	

2. 연구서 발간

한반도포커스	한반도포커스 2023-04 중국의 영역별 리스크 현황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2023. 5. 18. 루신지, 김동찬, 현상백, 조은교, 조성민, 문익준

한반도 남과 북 정권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과 정책 선택을 통해 중국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승자는 지정학적 선택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얻고 중국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루신지)

중국의 적극적 대외 정책으로의 전환은 동북아 지역 안보 질서 차원에서 한중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김동찬)

향후 중국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한중 제조업 협력도 첨단 분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내수 확대에 따라 소비재와 서비스업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현상백)

우리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확산 하에서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조은교)

대만 위기는 미국의 지원요청, 중국의 보복 가능성, 북한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조성민)

중국의 고령사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성장률, 임금상승, 물가하락,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경로에서 예측(문익준)

<목 차>

- **중국정치: 중국 국내 정치의 위험요인 현황 분석 및 한국에 대한 영향 전망**
  - 루신지(대만 국립중흥대 조교수)
- **대외정책: 시진핑 3기 중국 대외 정책 전환이 초래할 리스크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김동찬(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조교수)
- **중국경제: 중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 점검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현상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과학기술: 미·중 기술 경쟁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 조은교(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양안문제: 대만 해협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 조성민(미국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센터(APCSS) 교수)
- **인구문제: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문익준(국민대 교수)

한반도포커스	한반도포커스 2023-05 제8차 당 대회 이후 북한경제 현실과 전망

2023. 5. 24. 이영훈, 최은주, 최장호, 김두환, 김일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북한의 경협 확대 조짐은 향후 대북 제재의 균열과 북한의 경제 내구력 강화 가능성을 시사(이영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제시하였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각종 법안들을 제개정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부문의 경우 김정은 집권 이후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졌고 이를 법안에 반영해 왔다(최은주)

북한은 앞으로 무역 분야에서 포스트코로나(위드코로나) 전환을 서두를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확산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시장과 일반 가계 판매를 병행하는 일이 관찰(최장호)

대외교역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주택건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김두환)

최근 농업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수단을 손질하는 조치가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정책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누적된 농업부문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김일한)

<목 차>

- **국제정세 변화가 북한의 경제 내구력에 미칠 영향**
  - 이영훈 (동국대 DMZ 평화센터장)
- **최근 북한의 경제 정책과 경제법 정비 동향**
  - 최은주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과 시장물가**
  -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 **최근 북한의 살림집 건설정책**
  - 김두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북한의 식량문제 평가와 전망**
  - 김일한 (동국대 DMZ 평화센터 연구위원)

3. 교수 연구활동

【주요 활동 사항】

- 이상만 교수, 『한중사회과학연구』 20권3호 논문 게재
  - 날짜: 2023. 5. 26.(금)
  - 주제: “人口老龄化背景下的中韩养老保障比较研究”

- 임을출 교수, 법무부 발간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 제54호 논문 게재
  - 날짜: 2023. 5. 15.(월)
  - 주제: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정책 법령화-배경, 특징과 함의

- 김상범 교수, 『군사』(KCI등재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발행), 제127호 논문 게재
  - 날짜: 2023. 5. 26.(금)
  - 주제: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 연구(1964-1972)”

- 김상범 교수, 2023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인문사회) 과제 선정(5. 30.)
  - 주제: “인민대중제일주의 연구: 사상-법·제도-정책 간 상호 연결성을 중심으로,”

딘 울렛(Dean Outllette) 교수	
발표・토론	1. In honor of the visit by the Right Honorable Justin Trudeau, Prime Minister of Canada, I participated in opening ceremony of the Kapyeong Trail & Canada Houseon Thursday, May 18, 2023. - When/Where: Thursday, May 18, 2023, Canadian Korean War Memorial Garden, Gapyeong-gun, Gyeonggi-do

이상만 교수	
발표・토론	1. 대만 국제학술회의 발표 - 날짜: 2023. 5. 5.(금) - 주제: 尹錫悅政府的新对外政策的含義和展望 : -剖韩国《新印度-太平洋战略》为中心
학술활동	1.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World Politics 기고 - 날짜: 2023. 5. 26.(금) - 주제: “동아시아 세계체제에 대한 문명사적 탐색: 중국판 신국제질서의 적실성”

조진구 교수	
기고	1. 2023. 5. 10.(수), 아주경제 칼럼, “한일 셔틀 외교 복원 이후의 과제”
언론활동	1. 2023. 5. 1.(월), 고대대학원신문 쟁점인터뷰: “진정한 ‘화해’를 위한 이해와 협의라는 필수조건-한일관계의 현안과 전망을 논하다” 2. 2023. 5. 7.(일), YTN 출연, “용산 대통령실서 환영 행사…52일 만에 ‘한일정상회담’” 3. 2023. 5. 8.(월), YTN 출연, “한일 정상 12년 만에 셔틀 외교 재개…성과와 과제는?” 4. 2023. 5. 15.(월), 연합뉴스TV 출연, “윤대통령, G7 회의 참석…한일 ‘오염수 시찰’ 후속 협의” 5. 2023. 5. 21.(일), 연합뉴스TV 출연, “윤대통령 ‘2박3일’ 히로시마 G7 외교전 마무리” 6. 2023. 5. 21.(일), YTN 출연, “한일 정상,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 참배’…의미는?” 7. 2023. 5. 22.(월), 연합뉴스TV 출연, “대통령 첫 방문한 원폭 위령비…20년 넘게 걸린 이유”

임을출 교수	
발표・토론	1. 세계 전기차 협의회 주최, 제5회 <한반도 전기차 정책포럼> 주제 발표 - 날짜/장소: 2023. 5. 4.(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남북간 전기차 협력 추진 방안 2. 경남통일교육센터 주최, 젊은 세대 대상 통일홍보대사양성과정 특강 - 날짜: 2023. 5. 22.(월) - 주제: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활동	1. 2023. 5. 6.(토), KBS 남북의 창 인터뷰, “[이슈&한반도] 북, ‘워싱턴선언’ 반발…북중러 연대 강화?” 2. 2023. 5. 14.(일), YTN 출연, “한미·한일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북한 동향은?”

김상범 교수	
강의	1. 2023 경남통일교육센터 통일홍보대사 양성과정 특강 - 날짜: 2023. 5. 23.(화), ZOOM 강의

최영준 교수	
강의	1. 대구대학교 '북한학' 수강생 대상 특강(1차) - 날짜: 2023. 5. 11.(목), ZOOM 강의 - 주제: 북한 핵문제의 이해 2. 대구대학교 '북한학' 수강생 대상 특강(2차) - 날짜: 2023. 5. 16.(화), 대구대 - 주제: 사회통합의 조건과 실천

초빙/석좌교수

안호영 교수	
발표・토론	1. 경기도 고위 과정 강의 - 날짜/장소: 2023. 5. 16.(화), 수원 이비스 호텔 - 주제: 국제 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
언론 기고	1. 2023. 5. 2.(화), 중앙일보, "'워싱턴 선언' 다질 후속 조치 중요하다" 2. 2023. 5. 10.(수), 코리아 타임스, "What about China and Russia." 3. 2023. 5. 18.(목), 매일경제, "G-7을 생각한다." 4. 2023. 5. 22.(월),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국빈 방미와 중・러에 대한 접근법"

곽태환 교수	
발표・토론	1.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2023년 춘계 강연회 및 총회 세미나 사회 - 날짜/장소: 2023. 5. 17(수),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강당 - 주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미래 2.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한국 글로벌 피스재단 개최 제42회 전문가 정책 포럼 - 날짜: 2023. 5. 20.(토) - 주제: 남북관계 개선 방안
언론 기고	1. 2023. 5. 7.(일), 통일뉴스, "한미 '워싱턴 선언' 이후 윤 정부가 해야 할 일"

한용섭 교수	
발표・토론	1. 최종현 학술원, 미국하버드대학 케네디행정대학원 매튜 번 교수 일행과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과 워싱턴선언에 대한 한미 전문가 토의 주제발표 - 날짜/장소: 2023. 5. 8.(월), 최종현 학술원 - 주제: 워싱턴 선언의 핵억제차원의 의미와 한미 핵협의단의 구성운영 방법에 대한 발표 2. 충남대학교 에너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상, “파이로프로세싱과 소형원자로 기술의 발전” 세미나 기조강연 - 날짜/장소: 2023. 5. 12.(금), 충남대학교 - 주제: 한미 원자력 협력의 회고와 미래 발전 방향 3. 국회 윤상현 의원실, 중국전략 세미나 “한국의 중국전략 그 길을 묻다” 기조연설 - 날짜/장소: 2023. 5. 15.(월), 국회 4. 미국 워싱턴-서울 왕복 글로벌평화재단 주최 한국-미국 세미나 참석 (2023. 5. 16.(화) - 5. 22(월)) - 5. 17.(수), 미국 의회 Ford House Office Building H2-108, 한미 정책토론, “북한의 핵위협과 한미 워싱턴 선언의 의미, 북한 인권 문제의 제기 필요성,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주제발표 - 5. 18.(목),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차기 미국 행정부가 한미관계를 잘 관리하는 방법,” 주제발표

권기원 교수	
언론 기고	1. 2023. 5. 17.(수), “[권기원 칼럼] AI시대, 방송 및 통신의 혁신 과제”

임형신 교수	
강의	1. 2023. 5. 31.(수), 국군정보사령부 UDU정보부대 장교대상 안보교육
언론 활동	1. 2023. 5. 23.(화), 인천FM(98.5MHZ)라디오 프로(정경옥토크쇼)출연, 인천상륙작전 관련 인터뷰

4. 추천 도서

제목: 동쪽, 서독일의 발명(Der Osten, eine westdeutsche Erfindung)
저자: 디르크 오슈만
출간연도: 2023년
출판사: Ullstein
쪽수: 222

2023년 독일에서 발간된 이후 각종 매체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이 책은 통일 후 3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에도 독일 동부(舊동독 지방)와 그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인다. 책의 제목은 저자가 무엇을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지 드러낸다. 그것은 독일 동부의 현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서부가 동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이다. 즉 서부가 보유하고 있는 '해석권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책을 펼치기 전,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보았다. ①동부에 대한 차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차별은 얼마나 심각한가? 이를테면, 지역적 차별은 성차별 등 다른 차별 유형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가? ②그 원인으로 지적된 서부의 (잘못된) 관점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원인으로서 설득력이 있는가? ③서부의 잘못된 관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즉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자는 이 중 주로 처음 두 질문에 답변하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 먼저, 사회 각 분야의 고위층에 동부 출신자의 진출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여러 숫자들과 함께 지적된다(동독 출신으로 각 연방총리와 연방대통령의 자리에 이른 메르켈(Merkel)과 가우크(Gauck)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에 따르면, 동부 출신자의 학문, 행정, 사법, 언론, 경제 분야 고위직 진출은 평균적으로 1.7%에 불과하며, 독일의 대학 108곳 중 단 한 곳만 동부 출신이 이끌고 있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1월 현재 연방부처 공무원 중 동부 출신자는 채 1%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 군사 분야는 0%라는 현실감 없는 숫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저자가 보기에, 이와 같이 고위직에서 동부 출신자가 '과소대표'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이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일단 그것은 낮은 소득수준과 연결된다. 다만 과소대표만 문제는 아닌 것이,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에조차 동부 사람이 서부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동부 사람은 서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22.5% 덜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과소대표는 정치적 참여의 부족을 의미한다. 참여의 부족은 민주주의 등 제도에 대한 신뢰의 저하로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반(反)민주적 사고 및 행동과 결부될 우려도 있다. 끝으로 정치, 학문, 언론

등 분야의 높은 곳에 서부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동부와 그 곳 사람들의 모습이 서부의 시각에서 그려지는 데 일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문학교수답게 동부 방언(특히 작센 지방의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기시키기도 하고, 동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민주주의를 수행할 능력이 빈약하다는 서부의 '편견'도 지적한다. 그 결과 책의 제목과 같이 동부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서부가 그려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질문, 즉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책에서 충분한 대답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책 여기저기에 암시된 것을 제쳐둔다면, 책의 마지막 두 페이지에서 비교적 간략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비롯하여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연방관청과 연구기관을 동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적 논의에서 동부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설명하는 것을 '당장' 관두어야 한다는 등의 요구들이다(저자는 다른 곳에서 고위직에 대하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물론 모든 책이 반드시 정돈된 해결책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더해 문고판형으로 본문만 따져 187면에 지나지 않는 이 얇은 책이 문제적 현상을 분명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에도 불만을 제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끝으로 이 책은 한반도의 현실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가? 첫째, 그것은 통일 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통일을 이뤄내는 것 그 자체의 어려움에 더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까지 당장 고민한다는 것은 벅찬 요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한반도 통일 후 가능한 미래를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독일에서 이 모든 문제가 분단국가의 특수한 문제, 즉 통일의 일환(사후단계)으로서 통합의 문제로 다루어지기보다는 차별과 그 해소의 맥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지역차별과 다른 유형의 차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다 같이 염려되어야 하는 가운데 다만 해결의 우선순위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원되고 투입될 수 있는 대중의 관심이나 재정수단과 같은 자원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차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 스스로의 노력과 그와 관련한 전력(前歷)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운용과 실천에 적합하지 않다는 관찰과 비판에 대하여, 통일 전 동독 주민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민주화 노력은 유용한 반증으로 활용된다. 피차별자가 언제나 정해진 처우를 그대로 받기만 하는 대상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박서화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5. 제1기 IFES 북핵 아카데미

“북핵문제 대해부”라는 대주제 아래 3월 23일(목)부터 6월 1일(목)까지 11강에 걸쳐 진행되는 “제1기 IFES 북핵 아카데미” 교육 과정이 5월에는 ‘극동문제연구소 강의’와 ‘한국수력원자력 현장 견학’으로 진행되었다.

【 강 의 】

제7강(5.4.)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 김천식 (세한대 석좌교수, 전 통일부 차관)

제8강(5.11.) “핵 비확산과 한·미 원자력 협력”
- 한용섭 (경남대 초빙교수, 전 국방대 부총장)

제9강(5.18.) “북핵 협상 경과의 이해”
-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10강(5.25.) “윤석열 정부의 북핵 외교 전략”
- 김 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북핵 아카데미는 현장 강의와 온라인 방식을 병행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녹화된 강의 영상을 경남대 e-class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제7강 김천식 교수>

<제8강 한용섭 교수>

<제9강 위성락 교수>

< 제10강 김 건 교수>

【 한국수력원자력 현장 견학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제1기 북핵 아카데미” 수강생 중 13명은 5월 24일 이병철 교수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의 협조 하에 신월성 1호기와 신월성 2호기,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수강생들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플루토늄(Pu-94)과 천연우라늄(U-235, U-238)을 활용한 저농축 경수로의 원리, 그리고 사용후 연료저장조의 특징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다.

6.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 알림사항 】

- 꼬브시 안드레이(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부교수) 펠로가 5월 8일 입국, 6개월간의 공식적인 펠로십 활동을 시작
  - 연구주제: 북한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미치는 함의)

【 2차 펠로 특강 】

- 날짜/장소: 2023. 5. 10.(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초청 강사: 곽승지 전 연변과기대 교수
- 주제: 해방 후 북한-연변간의 상호관계(양자 관계 이해를 위한 기초 중심으로)
- 참석자: 펠로, 석·박사 학위과정생(북한대학원대), 주임교수, 통역사 등
- 내용
  - 연변지역 조선족 사회의 형성, 중국공산당과의 관계 등을 설명
  - 펠로들은 북한 정권의 연변 조선족들에 대한 지원의 변천, 조선족과 중국공산당 및 국민당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 토론

【 3차 펠로 특강 】

- 날짜/장소: 2023. 5. 17.(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초청 강사: 이상숙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교수
- 주제: 북중관계의 역사와 특징(비대칭 갈등을 중심으로)
- 참석자: 펠로, 석·박사 학위과정생(북한대학원대), 주임교수, 통역사 등
- 내용
  - 북중관계의 특수성, 비대칭 이론, 냉전시기 북중관계, 전환기의 북중 관계, 북중관계의 비대칭 갈등 등에 대해 설명
  - 펠로들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중국의 반응, 북핵 문제가 있음에도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 등에 대해 토론

【 2023년 펠로 상반기 워크숍 】

극동문제연구소는 펠로들에게 한국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현장답사와 펠로 연구발표회 및 전문가 특강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펠로십 수료자 사후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2023년 상반기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 행사 개요

- 날짜: 2023. 5. 22.(월) ~ 24.(수), 2박 3일
- 장소: 경주 및 포항 일대
- 참석인원: 연구책임자(소장), 펠로5명(양만봉, 진호, 전령현, 다하라료, 꼬브시), 펠로십 수료자 3명(엄파벨, 피터무디, 서천), 특강 전문가(이형종 교수), 담당직원 등 13명

■ 진행

- 펠로십 수료자 연구발표회 (5.22. 14:00~17:00)
  -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과 평양으로부터의 교훈(엄파벨)
  - 북한 선전선동의 진화-김정은 시대(2012-2023)의 대중음악(피터무디)
  - 중국과 한반도의 ‘일대일로’ 협력 가능성에 대한 연구(서천)

- 전문가 특강(5.23. 17:00~19:00)
  - 북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사례(이형종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현장답사: 첨성대, 동궁, 월지, 대릉원, 불국사, 석굴암, 포스코 등

7. 연구소 동정

【 한양대 국제학과 학생 도서관 견학 】

- 일시: 2023. 5. 8.(월)
-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 참석자: 한양대 국제학과 재학생 40명
- 세부일정: 극동문제연구소 홍보영상 시청, 도서관 및 특수자료실 참관

【 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학생 도서관 견학 】

- 일시: 2023. 5. 20.(토)
-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 참석자: 한반도문제연구회 학생 4명
- 세부일정: 도서관 및 특수자료실 참관, 북한대학원대학교 신종대 교수 간담회

8. 예정사항

【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 】

• 펠로 중간발표회
- 날짜/장소: 6.14.(수) 14:00- , 극동문제연구소
- 발표자: 진호, 양만봉

• 펠로 현장 견학
- 날짜/장소: 6.30.(금), 펠로 하나원 견학

• 2023년 4차 펠로 특강
- 날짜: 6. 20.(화)
- 주제: 북한 농업법
- 강사: 김일한 박사(동국대 DMZ 평화센터 연구위원)

• 2023년 5차 펠로 특강
- 날짜: 6월 하순
- 주제: 전두환 정부 대북정책, 남북관계
- 강사: 전현준 박사(국민대 겸임교수)

구독 회원가입 안내

■ 가입안내

-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 (pedia@kyungnam.ac.kr) 발송

■ 연회비 납부

- 일반회원: 50,000원, 학생회원: 3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 재가입: 회비 만 기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만기안내문 발송)
- 경남은행 570-07-0011980 (예금주: 경남대학교)으로 입금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를 포함, 보고서 및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본 연구소 도서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공신력 있는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www.nknews.org/pro)의 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 Fax. 02-3700-0707
E-mail. ifes@kyungnam.ac.kr
https://ifes.kyungnam.ac.kr